

“적성에 꼭 맞는 진로 찾고 싶어요”

장애인 진로·직업 통합박람회 현장 가보니

비누공예·쇼콜라티에·네일아티스트 등 다양한 체험 새로운 경험에 흥미진진...시간 모자라 아쉬움 가득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 위해 다양한 체험을 한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자신있습니다.”

광주시가 20일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장애인 진로·직업 통합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장애학생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를 찾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10시 박람회가 본격 시작되자,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 앞에서는 버스와 택시를 타고 도착한 장애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지도교사는 체육관에 들어가기 전 장애 학생들을 한곳으로 모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들은 같이 온 친구들과 함께 ‘벌써부터 설렌다, 무슨 체험을 할까’라며 들뜬 모습을 감추지 못한 채 안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체육관에는 비누공예가, 쇼콜라티에, 네일아티스트 등 다양한 직업체험관이 있었다.

장애 학생들은 저마다 재미있는 직업 체험관을 찾아다니기에 분주했다. 장애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쇼콜라티에였다.

한 장애 학생은 “나 초콜릿 엄청 좋아하는데...이거 할래요”라며 지도 교사에게 체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쇼콜라티에 강사는 장애 학생들이 자리에 앉자 6개의 초콜릿을 담을 수 있는 초콜릿판과 조그마한 6개의 리얼초콜릿을 나눠줬다.

강사는 장애 학생들에게 “초콜릿판을

보면 공간이 몇 개죠? 6개죠? 공간에다 리얼초콜릿 하나씩 넣으면 되요”라고 친절히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도록 직접 초콜릿판에 다크초콜릿을 짜는 모습을 보여준 뒤 장애 학생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또 준비해둔 초콜릿을 꺼낸 뒤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화이트 초콜릿으로 이쁘게 꾸며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화이트 초콜릿을 건네줬다.

헤어디자이너 직업체험관 앞에서는

강사가 한 장애 학생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깎아주는 모습도 보였다.

장애 학생은 강사가 머리를 깎아주는 동안 자신의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하는 지는 눈빛이 반짝거렸다.

강사가 장애 학생에게 완성된 머리를 거울로 보여주니 ‘정말 마음에 든다, 너무 이쁘다, 너무 감사하다’며 연신 고마워했다.

여성장애 학생들에게는 네일아티스트가 가장 인기가 많았다.

장애 학생들은 자기 손에 직접 매니큐어를 칠하면서 이쁘게 꾸며진 손을 서로 비교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또 강사가 학생 한명한명에게 매니큐어를 칠해주시니 학생들은 “빨리 자기 차례가 왔으면 좋겠다”며 들뜬 표정을 나타냈다.

미술사직업체험관 앞에서는 미술사가 재미난 입담으로 장애 학생들이 당황·어색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었다. 강사는 학생들의 집게·가운데 손가락에 고무줄을 끼워 준 뒤 반지·새끼 손가락으로 고무줄을 이동시키는 간단한 마술을 가르쳤다.

비누공예가직업체험관 앞에서는 학생들이 테이블에 앉아 비닐장갑을 끼고 비닐봉지 속에 들어 있는 SCI를 주물럭거리고 있었다.

한 장애 학생은 “너무 재미있었다. 초콜릿을 만들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돼 체험을 못 한 것이 아쉽다”며 “지도교사가 다음에는 꼭 체험시켜준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한 강사는 “생각보다 장애 학생들이 잘 따라줘서 놀랐다”며 “지인 중에 지적 장애인이 있어 장애인들을 대하는 방법을 조금은 알아 큰 어려움은 없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애 학생들의 진로를 설계하는 ‘2021 광주장애인 진로·직업 통합박람회’가 20일 오전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개막된 가운데 참여 학생들이 쇼콜라티에 직업 체험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오늘의 날씨

▶날씨 지역별 최저/최고/인

▶해돋이 06:44 해질 17:50
▶달돋이 18:20 달짐 07:00

생활정보지수

▶나들이 60
▶빨래 50
▶세차 50
▶운동 70

▶날씨안내 : 국민안전처

지역	강수량(%)	지역	만조	간조
광주	30-20	목포	02:30	07:41
목포	30-20		14:52	20:01
순천	20-30		09:24	03:04
여수	20-30	여수	21:33	15:21

서해 남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 북-북동/0.5-1.0m
 먼바다 ☁ 북-북동/1.0-2.0m

오후 앞바다 ☁ 북-북동/0.5-1.0m
 먼바다 ☁ 북-북동/0.5-1.5m

남해 서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 북서-북/0.5-1.0m
 먼바다 ☁ 북서-북/0.5-1.5m

오후 앞바다 ☁ 북서-북/0.5-1.0m
 먼바다 ☁ 북서-북/0.5-1.5m

주간날씨

전라(광주)	서울경기(서울)	강원영동(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10월 22/금 ☁ (7/16)	☁ (5/16)	☁ (8/16)	☁ (4/16)	☁ (6/18)	☁ (14/18)
23/토 (7/18)	☁ (6/17)	☁ (9/16)	☁ (4/18)	☁ (5/18)	☁ (13/19)
24/일 (7/19)	☁ (7/17)	☁ (8/19)	☁ (5/18)	☁ (7/19)	☁ (14/20)

“특수교육대상자 존중 ‘학과 배정’해야”

광주시민단체, 시교육청 ‘학교장 학과 결정’ 개선 촉구

광주 교육시민단체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존중해 특성화고교 학과를 배정하라”고 밝혔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내부 지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학교 입학 선정 배치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만 배정하고 학교장이 입학자의 학과를 결정한다. 이에 학벌없는시민사회 모임은 “특정

학과 입학을 위해 특성화고 진학을 결정 한 특수교육대상자 입장에서 ‘학교장의 학과 결정’은 매우 일방적”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모임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비인기 학과를 채우는 인원으로 활용되거나 학교장의 선입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과 선택권이 제약될 여지가 있다”며

“학교 시설과 교직원 상황에 따라 행정 편의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이 취급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재영 기자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

단속 시 기존 과태료 3배 부과...3개월 유예기간

광주경찰청은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가 금지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 장소에 한해 주·정차가 금지됐으나, 개정법이 시행되는 21일부터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 금지는 도로변 주·정차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지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면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 되

는 것과 함께 어린이 보행안전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다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발맞추면서도 주민 불편을 감안해 주택가 밀집지역 등은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시설(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장, 시경(경찰서), 시청(자치구)협의를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 64개소에 대해 구간 조정했다.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등 구간을 제

외한 저녁 8시부터 익일 아침 8시까지 한시적 주·정차 허용구역 14개소를 지정해 야간 주차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속 시행에 앞서 지난 7월 28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고, 21일 이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3개월 유예 기간을 거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서구, 2045탄소중립도시 실현 앞장

광주 서구가 가정 내 온실가스 감축 및 2045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학교,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해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입 시점부터 과거 2년간의 월 평균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감축률이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연 2회(6

월, 12월), 연간 최대 5만원까지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그린카드 소지자에 한함) 등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 유형을 ‘기부’로 선택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도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www.cpoint.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구청 기후환경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을 통해 할 수 있다. /인재영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섬진강이 길러낸 우리 농산물이 가득한 곳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목과시장, 석곡시장

● 장이 서는 날 ●

-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 매월 3일, 8일로 끝나는 날
- 목과시장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 석곡시장 : 매월 5일, 10일로 끝나는 날 (31일이 말일인 경우 31일)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후원 : **곡성군** 문의 : 062)650-2099